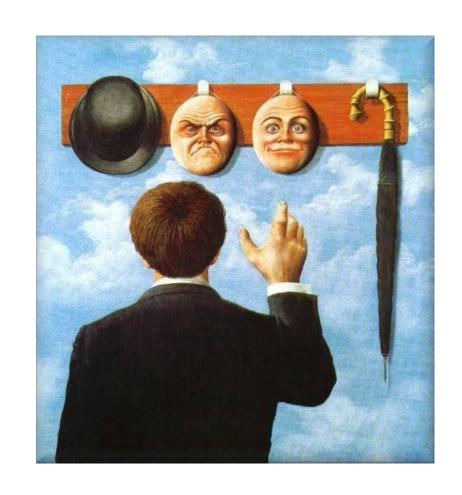
문학속의심리학 2022년도 1학기

- 페르소나(persona)란 무엇인가?
- ✓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가 맡은 역할에 따라 쓰는 가면
- ✓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에 의해 설명된 개념
- ✓ 인간이 집단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터득하는 사회적 역할 ex) 누구의 아내, 남편, 아들, 딸, 교수, 사장, 소속, 직위, 경력······

- 페르소나(persona)란 무엇인가?
- ✓ 나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
 - = 집단 속에 잘 융화되기 위해 수행
 - =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
- ✓ 남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
 - = 외적 인격 External Personality



• 페르소나(persona)란 무엇인가?

"인간은 이름을 얻고, 지위를 획득하며,

어떤 기능을 수행하고, 이런 저런 존재로 비추어진다.

그러나 페르소나는 가상(假相)이다."

-카를 융



르네 마그리트, <연인들>

- 페르소나(persona)란 무엇인가?
- ✓ 진정한 '자기'(self) 가 아니라 남에게 '보이는' 나 = 보여주기 싫은 모습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= **그림자**
- ✓ '그림자'는 무의식의 영역에 억압된 또 하나의 '나'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적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'나'의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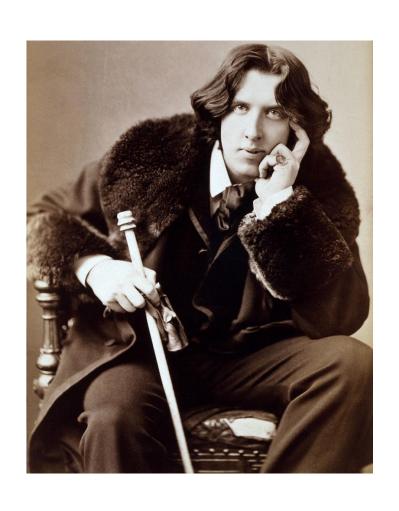
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

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-악수를모르는왼손 잡이오

(중략)

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요마는 또꽤닮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 니퍽섭섭하오

- 이상, <거울> 중





• 오스카 와일드, 1891년作

주인공 : 도리언 그레이 헨리 워튼바질 홀워드

•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로 인해 벌어진 사건

- 헨리가 도리언에게 하는 말
 - " 그레이 씨,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지녔소.
 - 그렇게 인상쓰지 마시오, 그 잘생긴 얼굴에.
 - 미(美)는 천재성의 한 형태지요.
 - 미는 그 미를 지닌 사람을 군주로 만듭니다."
 - → '외모의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다'라는 생각을 주입

• 도리언이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하는 말

"얼마나 슬픈가!

나는 늙어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겠지.

그런데 이 그림은 항상 젊은 상태로 남을 것이 아닌가.

거꾸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. 나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고

그림이 늙어간다면!"

늙지 않는 아름다운

나

= 남에게 보여지는 나



점점 늙고 추해지는

초상화

= 나의 진짜 모습

페르소나의 환상을 위해 진정한 자신을 말살해가는 인간의 비극

- 그림자는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다
- ✓ "그림자에 대한 통찰이란 바로 자신에게 있는 열등한 인격에 대한 자기 인식이며,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."

✓ 그림자 =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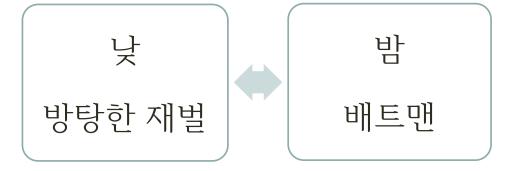
Ex) 나의 열등한 부분, 비열한 면, 부끄러운 면, 악한 면, 감추고 싶은 것

- 그림자는 페르소나 뒤에 숨어 있다
- ✓ 선천적으로 타고난 모습 중에서 사회가 수용하지 않는 부분
 - → 그림자가 된다 =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점점 축적된다
- ✓ Ex) 아니마와 아니무스 /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 역할의 사례



• 주인공 : 브루스 웨인 = 배트맨 Batman

•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



• 배트맨의 경우

방탕한 재벌

= 남에게 보여지는 나

= 페르소나



배트맨

= 내가 감추고 싶은 나

= 그림자

익명성 뒤에 숨어서 나의 금기된 욕망을 분출

• 조커 Jocker 의 경우



- ✓ 삐에로 모습으로 분장한 얼굴
 - → 맨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
- ✓ '조커'라는 캐릭터 뒤에 숨어 내면의 추악한 욕망을 분출
- ✓ 배트맨을 향한 광적인 집착

• 조커 Jocker 의 경우



- ✓ 피해망상적 증상
- ✓ 이상적 자아 ↔ 현실적 자아 두 자아 사이의 지나친 괴리
- ✓ 페르소나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
 - → 사회화 과정의 부재

-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
- ✓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
- ✓ 페르소나를 지나치게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= 진정한 자기(Self)의 실현
 - →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한다
 - → 그림자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억압되지 않도록 내면을 들여다본다